

광주시, 원효사 상가 이주 주민의견 듣는다

사업계획 초안 바탕 의견 수렴 충효동에 주거복합단지 조성 을 상반기 착공·2020년 완료

광주시가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토지이용계획 초안을 만들어 전문가는 물론 상인,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이용계획(단지조성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안

이 마련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시계획 등에 나선다.

지난해 상반기 이 사업을 광주도시공사에 위탁한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상가 이주용 주거복합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들 과정이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된다면 1980년대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계곡(해발 370m) 일대에 자리 잡아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시키려는 지적을 받아온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철거 작업과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에 동시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사업비는 국비 138억원, 시비 260억원 등 39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주거복합단지는 광주시 북구 충효동 757번지 일원 17만㎡에 조성될 예정이며,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 주거복합단지, 문화·체육단지, 전시·홍보시설단지, 청소년수련시설단지, 주차장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의 노하우와 함께 추진 당시의 문제점을 검토해 이번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이

전으로 인해 무등산 탐방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그로 인해 국립공원 승격이 가능했다”며 “이번 사업대상지가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만큼 무등산 경관을 최대한 보존 및 복원하고 원효사 상인, 인근 주민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0년대 들어 원효사지구에 형성된 상가의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원효사 상가이주 및 주거복합단지조성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건연 “하남산단 토양상태 양호”

공장 외부 오염도 더 높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하남산단 공장 내부와 주변지역 등 49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공장 주변지역의 경우 공장 내부와 녹지지역보다는 아연(Zn), 납(Pb), 수은(Hg) 등이 1.3~5.5배 높게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하남산단 내 남영전구수는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유출 등 산단에서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공장 10곳, 공장 주변 26곳, 녹지지역 13곳 등 총 49곳 100지점이다. 조사항목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 8종, 벤젠, 톨루엔 등 유류 7종 등 총 17개다.

조사결과 중금속 평균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1~59% 낮은 농도 수준인 아연(Zn) 75.1mg/kg, 납(Pb) 27.1mg/kg, 크롬(Cr) 14.1mg/kg, 구리(Cu) 8.8mg/kg, 니켈(Ni) 5.4mg/kg, 카드뮴(Cd) 2.0mg/kg, 수은(Hg) 0.02mg/kg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류 오염원인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안전 제일 광주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 임직원 60여명은 설을 앞둔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안전운행 및 치질 없는 2호선 건설을 기원하는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사는 최근 제천, 밀양, 대령 화재 사고와 의정부·서울 등지의 한파로 인한 열차 지연 사태와 관련, 명절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철도공사 제공>

13년째 모교 돕는 광천초 선배들

광천장학회 장학금 수여·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광주 광천초 동문들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하는 장학회를 13년째 펼치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6일 광천장학회(회장 김강원)에 따르면 오는 9일 제47회 광천초 졸업식에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번 졸업식에는 학교추천을 받은 졸업생 6명에게 한 명당 30만원의 소망 장학금이 수여된다.

광천장학회는 지난 2005년 광천초 9회 졸업생 10명이 모여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장학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어린 후배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희망 속에서 꿈꾸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소망 실천하기’ 후원활동을 매년 펼치기로 한 것.

소망 이우기를 주제로 한 이러한 후

진양성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동참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으며, 현재는 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장학회는 차츰 후원영역을 넓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등 교육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광천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강원(51)씨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고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장학사업을 위해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영어체험 교실사업’ 등에도 회원들과 힘을 모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불법 현수막 단속 주말도 쉬지 않는다

시·구청 정비반 44명 편성

광주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6일 “자치구와 함께 11개반 44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65일 불법현수막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반조급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월 말 5개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진 시는 건설주택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협의했다.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 현장 정비를 통해 99억3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취약 시간대별 참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율 감시체계 유지와 수거보상제를 연계해 신속히 정비한다.

이 밖에도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택분양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한다.

시는 다수·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신규 콘텐츠 모집

20일까지 3개 분야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8년 ‘신규 교육 콘텐츠’와 ‘1시민 1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신규 교육 콘텐츠’공모는 인성다모작 준비에 필요한 생애전환기 교육, 커리어 분야 탐구,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커리어 개발’, ‘미래설계 아카데미’, ‘사회공헌활동’ 등 3개 분야 15개 신규 교육 콘텐츠에 모두 8000만원을 지원한다.

커리어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 이력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강사)을 대상으로 시민의 커리어 개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공모한다. 세부 모집 분야는 청년, 3040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각 세대별 맞춤형 신규 교육 콘텐츠로 9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미래설계 아카데미 분야 역시 청년, 3040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 각 세대별로 미래 준비를 위한 인생재설계를 돕는 신규 교육 콘텐츠 3개 내외를 정한

다. 사회공헌활동 분야는 중장년(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 3개 내외를 고를 예정이다. 선정된 제안자가 책임강사로 참여해 진흥원에서 상반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1시민 1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도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인문학, 지역학, 공동체, 평생학습 연구, 창작 등 지역사회 현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참여형 학습동아리’로, 1개 동아리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 콘텐츠 공모 및 1시민 1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20일(화)까지로, 7일 오후 2시 광주 시 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 진흥원 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확인하거나 인생다모작팀 담당자(600-5242~3)에게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미등록경로당 22곳 난방비 지원

광주시는 관내 미등록경로당 22곳에 동절기 난방비와 난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가 지난 1월 자치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미등록경로당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됐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회원, 화상실·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전기시설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을 지칭한다. 이들 시설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은 난방비, 전기요금, 온수매트, 침구, 양곡 등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미등록경로당 4월 말까지 3개월간 난방비와 온수매트, 침구 등 난방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 자치구, 민간 등과 함께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용품,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